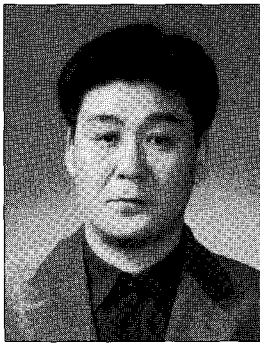


광분해성 안료 개발

고객만족 · 환경문제 해결 동시 실현코자



◀ 이승곤
(주) 보스팩 대표이사

산업이 발전하면서 편리한 생활과 더불어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들이 풀어나 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주위를 둘러볼 때 환경문제를 해결코자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포장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 유해물질 · 고분자 재료의 사용이 늘면서 질적으로도 악성화되고 있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의 사회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이후에 남는 최종처리 대상인 폐기물은 경쟁력 있는 기

술개발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주)보스팩은 지구 환경 보존에 공헌코자 지난 1987년 9월 (주)승기화학으로 설립, 다양한 용도의 일반 비닐 포장재 생산은 물론 광분해성 플라스틱안료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으며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수 용도에 필요한 포장재 개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내 사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연포장 분야에 종사하시던 처가집의 권유로 포장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한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주)보스팩 이승곤사장은 공대를 졸업해 7년여 동안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광분해성 플라스틱 안료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아낌없는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거듭실행해 나가고 있다.

광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광분해성이란 기본적으로 태양광선의 자외선 에너지를 이용해 고분자 고리를 끊어 수지의 물



▲ (주)보스팩의 서울 사무실 내부 전경

리적 성질을 저하시키게 되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주)보스팩 이승곤 사장은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단순히 광분해 활성제만을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외선 안정제와 광분해 활성제의 두가지 성질을 조화 있게 활용해 원래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하며 원하는 일정기간내에 분해가 가능하도록 만든 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광분해성 플라스틱에 관심을 보이게 된것은 설립초기 미국에 자료 조사차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 사장은 “설립 초기에 미국에 자료조사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미국 월마트에 가서 구입한 제품을 담아준 비닐 봉투에 ‘광분해성 비닐 봉투’라고 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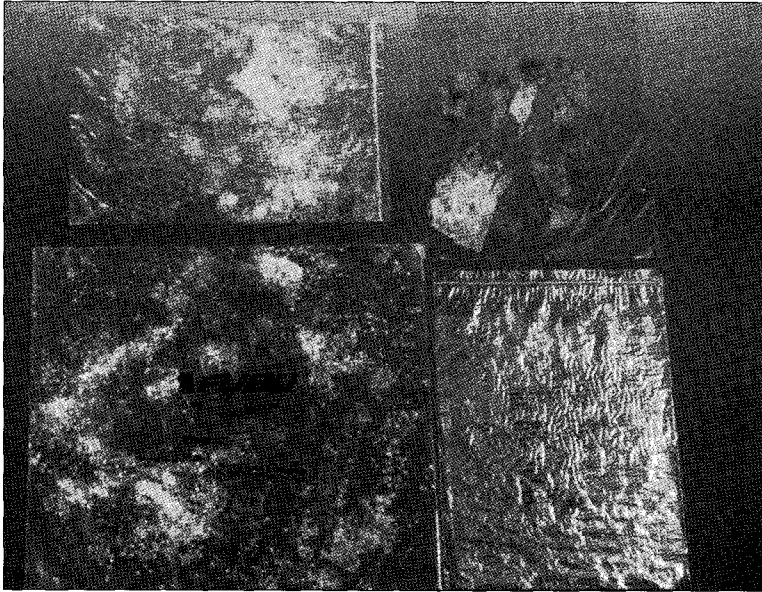
그 길로 한국에 돌아와 광분해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했으며 3년만에 광분해성 안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활용하여 (주)보스팩은 자연분해성 의류 포장재를 개발해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기존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대부분 폐기후 자체로 분해되지 않는 영구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로 되고 있으며 비분해성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시정이었으나 (주)보스팩이 자체 개발한 환경친화성 필름(상품명 : SG-PE)은 폐기 후 자연분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사에 의류 포장용 폴리백을 수출 판매하고 있어 그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력을 결정해주는 안료의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이사장은 “일부 업자들이 안료만을 구입해 적정 사용량을 투여하지 않고도 환경친화성 폴리백 제품을 개



◀ 40일이 경과된 생분해성 필름

발했다고 속여 고가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업성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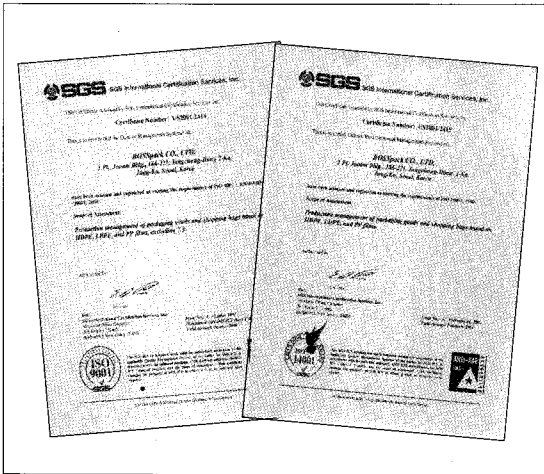
이 사장은 “제품의 특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적인 면만을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것을 얻으려면 좀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비록 광분해성이라든지 생분해성, 생분괴성제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과 다소 가격 차이가 있으나 환경 친화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사용에 있어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ISO 9001/14001 획득

(주)보스팩에서 개발한 광분해성 안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은 분해성 POLY BAG 세계최고 검사기관인 Advanced Plastic and Material

Testing Inc와 ACTS TESTING LABS사로부터 광분해성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품질경영 시스템 ISO 9001과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을 취득해 체계적인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 사장은 “각종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체계를 갖추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과 최고의 품질 추구, 최상의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주)보스팩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납기준수를 100% 달성과 재고의 축소, 비축기간단축으로 인한 고객 만족 실현 등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사장은 “미래의 고객 요구를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 보스팩이 획득한 ISO9001과 14001인증서

“이를 위해서는 목적과 방향의 일관성 및 총체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전직원의 화합을 통한 참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 모두의 단합을 바탕으로 동기 유발을 통한 적극 참여와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주)보스팩은 융화와 단결을 위해 정기적인 야유회를 갖고 있으며 매 분기별 직원을 선발해 SGS ICS에서 운영하는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안정된 조직 관리 갖춰

(주)보스팩은 총 16명의 직원으로 서울 사무실과 PE, PP, HDPE, 분해성 필름을 생산하는 광주공장, 가공·인쇄·배송을 담당하는 울지로 공장이 있다. 또 서울 사무실에는 관리팀과 영업팀, 생산관리팀, 품질환경팀 총 4개팀으로 구성

돼 있다. (주)보스팩은 동 분야 업계에서는 드물게 서류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행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장은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다 보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혹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놓았을 경우에는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우수한 물성과 가공성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갖춘 광분해성 안료 개발로 일반 제품의 가격으로 책정, 업계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이 사장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독점을 하지 않고서야 동 업체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서로를 격려해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상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제품과 비교 시 제품 특성이 더 뛰어나다면 거래처는 그 제품만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탄한 거래선 확보는 물론 제품 홍보효과까지 겸해지게 되고 이에 힘을 얻어 기술개발에 더욱더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고객 욕구 충족과 환경 문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시키며 세계로 향하는 (주)보스팩을 통해 환경친화적 신 포장재 시장의 장을 열어가길 기대해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을 지켜온 이 사장의 적극적인 도전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결실로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K]

권해진 기자